

### ■ 연구원 소식

#### ○ 황지호 회원 신간 도서 안내 “산전수전 겪지 않고 시골집 고치기”

우리연구원 황지호 회원이 쓰고 한명수 전임 운영위원이 출판한 신간도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도시 생활을 하는 이라면 누구나 꿈꾸어 봄직한 일이지만 무턱대고 귀농했다간 유턴하기 십상입니다.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위한 가장 어려운 선택은 살 집을 선택하고 집을 짓는 일일 것입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직접 집을 고치고 짓는 과정에서 얻은 생생한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이웃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요령을 비롯해 좋은 집터, 피해야 할 집터, 시골집을 선택하는 기준, 공사비 내역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 ○ 오경택 회원 신간 도서 안내 “조선중기 전주지역 사족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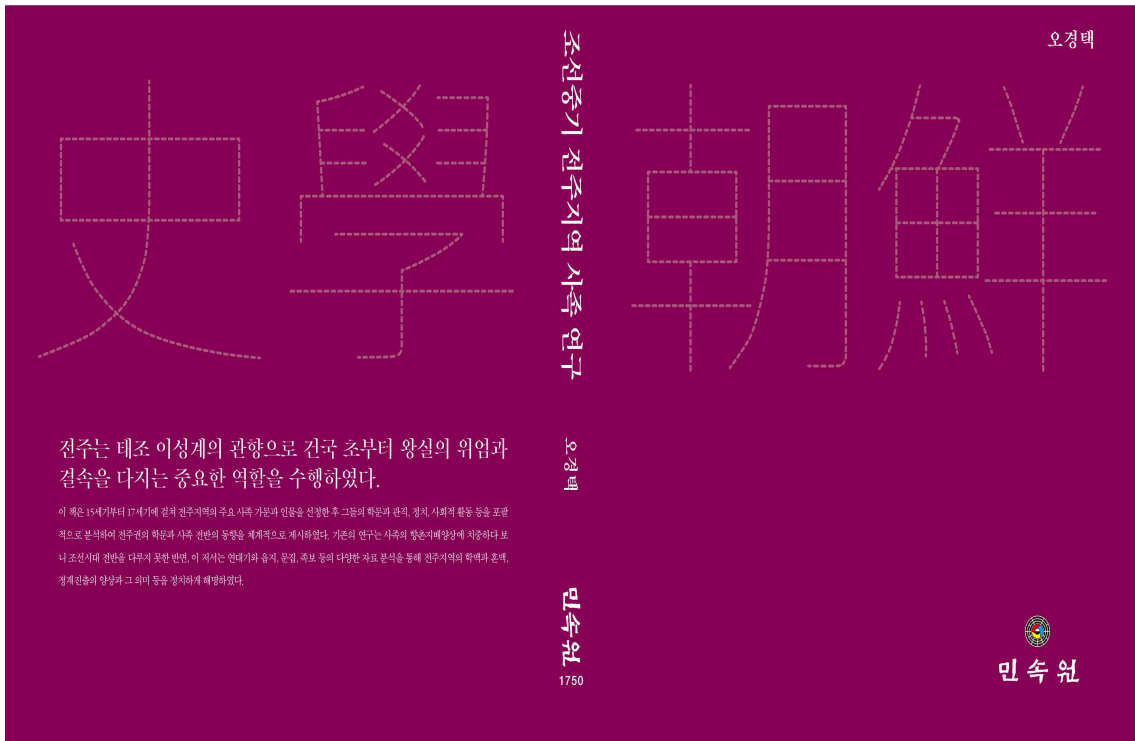
우리 연구원 오경택 회원(문학박사, 전주 성심여고)이 쓴 신간도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사학회연구총서 19

조선시대사학회연구총서 19

### 조선중기 전주지역 사족 연구 朝鮮中期 全州地域 士族 研究



조선중기 전주지역 사족 연구(저자 오경택, 출판 민속원)은 15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전주지역의 주요 사족 가문과 인물을 선정한 후 그들의 학문과 관직, 정치, 사회적 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등 전주권의 학문과 사족 전반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 스리랑카 한 달 살이 이야기 연기 안내



유영봉 교수님과 함께하는 스리랑카 한 달 살이 이야기 나눔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연기되었습니다.

5월 5일까지 예정된 정부의 코로나 대응책이 변동 되는대로 회원 여러분과 시민을 모시고 문화강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구체적 일정이 수립 되는대로 연락 올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늘 화평한 날만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 포로가 된 포로수용소장(1952. 5. 7)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년여가 흐른 1951년 7월부터 시작된 휴전회담이 2년이나 지속된 것은 포로 때문이었다. 유엔군측이 발표한 북한군 포로는 13만2400여명(중공군 포로 2만 700명 포함)이었고 북한측이 발표한 유엔군 포로는 1개월 전 평양방송을 통해 주장한 6만5000여명에 훨씬 못 미치는 1만1500여명(유엔군 4400여명 포함)이었다.

문제가 된 것은 포로송환이었다. 유엔군측이 인도주의적인 점을 강조한 자유송환 즉 원하는 포로만 북한으로 보낸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북한측은 1949년 제네바협정이 규정한대로 자동송환 즉 모든 포로를 북한으로 송환하라는 주장을 폈다. 북으로 송환되기를 원하는 포로가 7만 여명뿐 이라고 유엔군측이 북한에 통보하면서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거제도에는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포로수용소가 있었는데 교착에 빠진 포로송환 문제로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충돌이 빈발했다. 결국 1952년 5월7일, 거제도 제76포로수용소장 도드(Dodd) 준장이 포로들에게 납치·감금되는 포로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 수용소 철조망 밖에서 포로들과 면담을 하던 중 포로들에게 수용소 안으로 끌려간 것이다.

1952년 5월 7일, 도드 준장은 제76구역 포로들이 처우에 불만을 품고 포로수용소장 면담을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도드 준장 보좌관은 포로들의 과격한 행동을 우려한 나머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도록 포로수용소장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도드 준장은 보좌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약속시간에 제76구역 출입구에서 직접 포로대표들과 면담했다. 그런데 면담 도중 포로들이 그를 에워 쌓고 순식간에 포로수용소 안으로 끌고 갔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이 사태를 긴급히 보고받고, 즉각 콜슨 준장을 새 거제포로수용소장으로 임명했다. 포로들은 도드 준장 감금에 성공하자 콜슨 신임 포로수용소장에게 도드 석방의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그 요구조건은 포로수용소 내에서 유엔군 기간병들의 포로에 대한 야만적 행위 중지, 포로 자유송환 중지, 포로 강제분리 심사 금지, 포로대표단 인정 등이었다.

콜슨 소장이 그들에게 포로 자유송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조건을 수용했고 포로들은 수용소장이었던 도드 준장을 풀어주었다. 도드가 감금된 지 3일만이었다.

도드 준장이 석방되자 유엔군사령부는 그의 실책을 추궁했다. 그와 함께 사태 수습을 맡았던 콜슨 준장도 너무 큰 양보를 하였기에 포로수용소장으로 신중치 못한 처사라 하여 그 책임을 물었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즉각 콜슨 포로수용소장도 해임하고, 그의 후임에 보트너 준장을 새 거제포로수용소장으로 임명했다. 그런 뒤 도드 납치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곧 도드와 콜슨 두 준장을 대령으로 강등하는 불명예 조치를 내렸다.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대장은 수용소 치안에 대한 강경책을 구사했고, 신임 수용소장인 헤이든 L. 보트너 준장이 6월 10일 공수특전대와 탱크를 앞세운 대대적인 무력 진압을 시도하면서 '거제도 포로 소요 사건'은 도드 석방 한 달 만에 일단락됐다.

## ■ 천년 암자에 오르다

### 남해를 품은 <금오산 향일암과 백도> 첫 번째 이야기 “갯김치로 유명한 돌산읍”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전라선의 종착지는 이름처럼 물빛 고운 여수麗水다. 남쪽 바다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나오는 ‘한려수도’란 말은 한산도와 여수를 잇는 뱃길을 가리킨다. 이곳 여수에 신비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향일암向日庵이 있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맛보기 힘든 서대회도 있다.

향일암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암자다. 해를 바라보는 암자라는 이름부터가 아주 근사하다. 항구도시 여수의 색다른 풍광 역시 가슴을 설레게 한다. 게다가 옥빛 물살을 헤치고 백도까지 유람할 예정이라면, 여수로 출발하기 전날 밤은 잠을 설치기 십상이다.

우리나라에는 4대 관음 사찰이 있으니, 소위 ‘기도밭’이 잘 받는다는 암자와 절 네 군데를 가리킨다. 동해의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양양의 흥련암이 그렇고, 남해의 보리암 역시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정진하기에 좋은 암자다. 서울에서 가까운 강화도의 보문사 또한 서해의 아름다운 낙조를 볼 수 있는 관음 성지다. 여기에 바다 풍경이 그림 같은 여수 돌산突山의 향일암을 합쳐 4대 기도처로 꼽는다. 그리하여 불교 신자들은 물론이요, 향일암의 멋들어진 경관에 반한 일반 관광객들도 끊임없이 여수를 찾는다.

여수에서 향일암을 찾는 길은 어렵지 않다. 향일암을 가리키는 안내판이 여수 거리에 수두룩하다. 여수에서 77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 죽포리의 방죽포 해수욕장 앞에서 우회전을 한 다음, 계속 직진하면 향일암이 나온다. 돌산대교에서 향일암까지의 거리는 23km다.

여수의 돌산은 우선 갯김치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곳이다. 여수에서 돌산대교를 지나 향일암으로 향하다 보면, 돌산은 반농반어의 풍요로운 동네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차창의 왼편으로 스치는 굴전 마을을 보노라면, 이곳이 굴을 양식하는 천혜의 어촌임이 실감난다. 적곡재를 넘기 전 둔전리를 지나다 보면, 이곳 또한 복된 농촌이구나라는 생각이 뒤를 잇는다. 돌산천 한 줄기가 둔전리를 적시며 가로지르는 일을 잊지 않았다. 두 곳 모두 섬이 감싸고 산이 감싼 분지처럼 생긴 복된 터전이다.

적곡재를 넘으면, 죽포리의 녹색 가르마를 탄 밭들과 멀리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바다가 함께 보인다. 농촌의 흙 밭과 어촌의 물 밭이 동시에 등장한다. 반농반어의 경제적인 부가 읽혀지는 돌산읍이다. 한겨울에도 새파란 갯이 알싸한 내음을 풍기며 제일 먼저 봄을 부르는 행복한 동네다.

길가에는 사계절 내내 갯김치와 젓갈을 파는 가게들이 이어진다. 해풍을 쏘인 갯이라서 향기가 코를 찌르고, 청정 해역에서 나오는 어패류로 담은 젓갈이라 맛이 뛰어나다. 막걸리 한 사발이 절로 생각나는 갯김치요, 젓갈이다. 입맛이 다셔지고 침이 고인다.

방죽포 해수욕장 입구를 지나면 길이 좁아진다. 그러나 바다를 바라보는 즐거움은 아주 크다. 가슴이 툭 터지니 야호 하며 외치고 싶은 심정이다. 바닷가의 갈매기도 찾는 이를 반긴다.

해송이 우거진 길을 따라 20분가량의 행복한 드라이브를 마치면 탐방안내소가 지키는 주차장에 서야 한다. 여기서부터 향일암 입구의 '거북이 목'까지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걸어야 한다. 그러나 역시 걷기를 권하고 싶다. 바다를 건너온 해풍을 맞으며 향일암을 바라보고 걷는 재미도 괜찮다.

**다음 주는 남해를 품은 <금오산 향일암과 백도> 두 번째 이야기 "향일암 오르는 길목"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